

# 강건·빨랫줄 송구... '될성부른 포수' 효천고 허인서

KBO 연고 선수 신인 1차 지명 진행 마지막 해...고교생 대어 들 포진 KIA, 동성고 내야수 김도영·진흥고 투수 문동주 등 행복한 고민 효천고 정진 감독 "양이지 능가할 것"...장재근 감독도 '엄지척'

KIA 타이거즈는 올 시즌 머리 아픈 고민을 하고 있다. 연고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신인 1차 지명이 진행되는 마지막 해, '3학년 특급 선수'들이 대거 새 시즌을 기다리고 있다. 각기 다른 포지션에서 개성과 실력을 뽐내는 선수들 덕분에 KIA는 행복한 고민이 아니라 머리 아픈 고민을 하고 있다. 1차 지명 대상자로 동성고 내야수 김도영과 진흥고 투수 문동주의 이름이 뜨겁게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 효천고에도 때를 기다리고 있는 선수가 있다. 효천고 안방을 책임지는 포수 허인서도 스카우트들이 주목하는 '대어'다. 허인서는 "어깨가 강하고, 공 빠는 속도가 빠른 자신감 있는 포수다"고 자신을 이야기한다. 허인서의 이야기대로 강한 어깨를 바탕으로 한 빨랫줄 송구는 감탄사를 부른다. 정진 효천고 감독은 '능구렁이 같은 포수'라고 평가한다. 정 감독은 "강한 어깨가 장점이다. 많은 포수가 수비만 잘하거나 달리기 느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서는 방망이도 좋고, 야구를 알고 하는 선수다"며 "아직 어리고, 1학년 때부터 주전으로 뛰어서 경험도 많아서 양의지를 능가하는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순천에서 전지훈련을 했던 흥익대 장재근 감독도 "좋은 포수다"며 엄지손가락을 지켜 드는 선수. 남다른 체격 덕에 순천북초 감독 눈에 띄어 야구를 시작한 허인서는 여수중 1학년 때 본격적으로 마스크를 썼다. 그리고 도루 잡는 매력에 폭 빠져 포수의 길을 걷고 있다. 허인서는 "도루 잡을 때 그 기분이 정말 좋다. 투수가 타이밍을 뺏겨도 내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베이스만 보고 전력투구 한다. 2루 던졌을 때 옆에서 한 번씩 감탄사 나올 때 기분이 좋다"며 "포수로서 투수와 호흡도 중요한데 시합 때는 위로 많이 해주는 편이고, 연습할 때는 안 되는 것, 부족한 것 강하게 말하는 편이다. 시합처럼 긴장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말한다"고 말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투수들을 리드하고, 도

루 저지로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만점 포수. 타석도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간다. 허인서는 "타석에서도 칠 수 있는 타이밍에 오는 공은 자신 있게 후회 없이 친다. 팀에 도움이 되려고 한다. 수비는 어느 정도 되니까 방망이에 더 욕심이 난다"며 "타격할 때 뒷다리가 무너지는 게 가장 문제라서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 많이 했다. 연습할 때는 그 부분 신경 쓰지만 시합 때는 의식 하지 않고 내 것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수비에서는 KIA 한승택의 미트질에 눈이 가고, 타격에서는 NC 양의지를 닮고 싶다. 허인서는 지난해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NC의 시즌 최종전을 보기 위해 광주로 걸음을 하기도 했다. 허인서는 "야구부 친구 몇 명이랑 챔피언스필드에 갔는데 나도 저기서 뛰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가까운 KIA로 가는 게 목표다. (우선지명 경쟁이 치열한 만큼) 공·수 밸런스가 좋은 포수로 보여지는 게 목표"라며 "3학년 되고 스카우트분들 많이 오시니까 프로가 실감이 난다. 긴장도 되는데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동기부여가 생긴다"고 언급했다. 또 "올해 첫 번째로 이루고 싶은 것은 팀 우승이다. 청소년 대표도 가고 싶다"며 "내 것, 할 것 하면서 팀을 이끌어가는 포수가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



강한 어깨로 프로구단 스카우트들의 눈길을 끄는 순천 효천고 포수 허인서가 모교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기만 해봐라~" 16일(현지 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2021 여자프로테니스(WTA) 프리미어 상트페테르부르크 레이디스 트로피 1라운드 경기에서 러시아의 다리아 카사트키나가 리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손흥민 한일전 출격 여부, 주말 결정

25일 요코하마서 평가전 토트넘, 19~20일 축구협회에 전달 황희찬, 격리 규정에 차출 불발

손흥민(29·토트넘)의 한일전 출격 여부가 오는 주말에야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대한축구협회(KFA)에 따르면 토트넘은 현재 손흥민의 부상 부위 등 몸 상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대표팀 차출과 관련한 입장을 19~20일께 KFA에 전달하기로 했다. KFA는 토트넘으로부터 공문을 받는 대로 손흥민의 한일전 출전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은 3월 A매치 기간인 오는 2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일본과 국가대표팀 평가전을 치른다. 파울루 벤투 대표팀 감독은 손흥민을 소집 명단에 포함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명단 발표 수 시간 전 열린 아스널전에서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을 다치고 말았다.

이런 가운데 영국 매체 '풋볼런던'이 16일 "손흥민의 부상이 심하지 않아 오는 주말 애스턴 빌라 원정 경기에 맞춰 돌아올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KFA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아직 손흥민의 그라운드 복귀 시점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KFA 관계자는 "손흥민의 햄스트링 부상이 염좌나 타박처럼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어서 토트넘이 다양한 테스트를 하며 손흥민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면서 "토트넘도, 우리도 노심조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일전이 유관중으로 열리게 되면서 영국 정부 방역 규정상 손흥민 차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정부는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은 귀국 후 곧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를 면제해주는 특별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대표팀 복귀 후 5일 이상 자가격리를 해야 할 경우 소속팀이 차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국 정부의 특별 규정은 해외에서 열린



경기가 '무관중'으로 치러졌을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일전이 유관중으로 열리는 것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토트넘이 차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이번 가운데 독일 라이프치히 소속 황희찬(25)은 결국 차출이 불발됐다. 황희찬은 명단에 이름은 포함됐으나 '조건부'였다. 소속팀과 주장부가 귀국 이후 격리 면제를 논의하던 단계라 변동 가능성이 있었는데, 끝내 격리 면제가 어려워지며 대표팀 합류도 무산됐다. 황희찬의 차출 불발에 따른 대체 선수 발탁은 하지 않기로 해 일본전 소집 선수는 23명이 됐다. /연합뉴스

## 양현종 향한 엇갈린 시선

현지 언론, 개막전 로스터 26명 예상...투수 13명에 이름 못올려

양현종(33·텍사스 레인저스)이 미국프로야구(MLB) 정규리그 개막전 26명 출전 선수 명단에 들 수 있을까. 양현종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린 상태에서 17일(한국시간)엔 비판적인 현지 언론의 전망이 나왔다. 댈러스 모닝뉴스는 인터넷 기사에서 텍사스 구단의 개막전 로스터 26명을 예상했다. 투수 13명 중 양현종의 이름은 없었다. 댈러스 모닝뉴스의 에번 그랜트 기사는 카일 김슨, 마이크 폴티네비치, 아리하라 고헤이, 카일 코디, 한국계 데인 더닝, 테일러 현, 웨스 벤저민 등 7명을 선발 투수로 꼽았다. 크리스 우드워드 텍사스 감독은 4월 2일 개막전 투수로 김슨을 예고했다. 우완 5명과 더블어 왼손 브렛 마틴 등 6명이 볼펜에서 대기할 것으로 봤다. 텍사스는 김슨, 폴티네비치, 아리하라 등 3명을 고정 선발로 내정했다. 이어 코디와 벤저민, 더닝과 현 등 오른손 투수와 왼손 투수를 짝지어 한 경기에 두 명씩 선발 투수를 투입하는 전략으로 4~5선발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양현종은 시범경기에 두 번 등판해 3이닝 동안 홈런 1개 등 안타 3개를 맞고 1점을 줬다. 최근인 14일 밀워키 브루어스를 상대로 한 경기에선 2이닝 동안 삼진 3개를 슈아내며 1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댈러스 모닝뉴스의 전망대로라면 양현종이 텍사스 구단의 눈도장을 받아 파고들 수 있는 자리는 그나마 유동성이 큰 볼펜으로 좁혀진다. 남은 시범경기에서 멀티 이닝을 던질 수 있는 내구성과 꾸준함을 보여줘야 불변한 자리를 차지하고 개막전부터 바리커가 될 수 있다. 미국 언론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팀당 60경



기만 치렀다가 올해 162경기로 돌아가자 한국에서 7년 연속 평균 170이닝 이상을 던진 양현종의 어깨를 높게 평가했다. 개막전 로스터 진입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드워드 감독이 바리커 경험을 지닌 선수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겠다는 뜻을 나타내면서 분위기는 바뀌었다. 텍사스 스프링캠프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는 베테랑 양현종의 유일한 약점이 바로 바리커 경험이 없다는 것이어서다. 양현종은 텍사스와 바리커 로스터 포함되면 연봉 130만달러를 보장받고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최대 55만달러를 가져가는 스플릿 계약(메이저 리그와 마이너 리그에 있을 때 연봉 조건이 다른 계약)을 했다. /연합뉴스

## 타이거 우즈, 퇴원

차량 전복사고 3주만에...SNS에 "집에서 회복" 메시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6·미국)가 차량 전복 사고 후 약 3주만에 퇴원해 미국 플로리다주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간다. 우즈는 17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집에 돌아와 치료를 이어가게 됐다"는 사실을 전하게 돼 기쁘다"며 "사고 이후 보내준 많은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우즈는 지난달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양쪽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사고 직후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보도가 나오

는 등 우즈는 당분간 대회 출전이 어려운 것은 물론 한동안 혼자 걷기도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우즈는 사고 후 한 차례 치료 병원을 옮겼으며 이번에 자택으로 거처를 이동해 치료 및 재활을 이어갈 예정이다. 우즈의 사고 후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최종 라운드에는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를 비롯한 여러 선수가 평소 우즈의 대회 마지막 날 복잡한 똑같은 빨간색 상의에 검은색 하의를 입고 나와 우즈의 쾌유를 기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